

한국인들의 위기 대처 능력 높이평가

Roland P. Broennimann 박사
(로슈비타민 사업부 대표)



본고는 지난 4일 로슈비타민코리아(대표 조양
래) 창립기념행사에 참석차 내한한 Roland P.
Broennimann(로슈비타민 사업부 대표) 박사를
만나 인터뷰를 한 내용이다. -편집자주-

Q 로슈사는 어떤 회사인가?

A 로슈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100여
개 이상의 국가에서 1만여명 이상의 종업
원이 일하고 있는 국제적인 건강산업분야의 선두
회사이다. 로슈그룹은 현재 의약품, 비타민 및 정
밀화학분야, 진단용 시약사업 본부로 나뉘어져
예방, 진단, 치료의 모든 건강분야를 관장하고 있
으며, 전 세계적으로 약 40~45%의 비타민 시장
을 차지하고 있다.

Q 경제사정이 어려운 한국에 투자를 하게된
이유는?

A 현재,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경
제상황은 침체되어 있는게 사실이다. 그러
나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고 양질의 노동력을
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이
다. 2-3년 내에 한국경제는 틀림없이 회복될 수
있으며, 21세기에는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
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. 한국 사람들은 위
기에 대처했을 때 강해지는 것을 알고 있다.

Q 로슈사가 비타민 분야에서 선두를 지킬 수
있는 비결은?

A 1934년 이후 60여년간 활발한 연구 활동
과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
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 볼 수 있다. 이러한 성
과로 인해 노벨상을 수상하는 업적을 남기기도
하였으며 그 후에도 연구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
새로운 제품생산에 노력해 왔다. 또한 로슈는 서
비스 지향적인 회사로 고객은 물론 로슈가 속해
있는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.

Q 한국의 비타민 시장과 사업계획은?

A 앞으로 인류는 비타민제를 직접 보고 구입
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므로 비타
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. 한국에서는 일부
제품만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안
다. 비타민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물질이므로
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해 복용할 수 있었으면 한
다. 한국의 비타민 원료분야 시장 규모는 1억불
정도로 추정되고 있다.

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시
장가운데 하나이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
높은 지역이다. 한국의 유통구조 등 당장은 어려
운 점이 있으나 로슈비타민 코리아가 이 몫을 충
분히 해 줄 것으로 믿는다. **양계**